
감응하는 생명, 절연된 세계 - 무라타 사야카 『소멸세계』의 생명윤리적 독해*

김병진 (단국대학교, HK조교수)

박이진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에텐 시스템’의 언어, 생명의 재설계
- III. 설계의 균열과 감응하는 생명
- IV. ‘에텐 시스템’을 넘어서: 감응 윤리의 규범적 제안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무라타 사야카의 『소멸세계』를 생명윤리 관점에서 읽는다. 실험도시 ‘에텐’은 위생 이데올로기와 생명정치를 통해 사랑·성·출산을 ‘안전’과 ‘효율’의 언어로 통제하는 절연된 체제로 그려지며, 본고는 이 매끄러운 관리가 포획하지 못하는 ‘감응의 잔여’에 주목하고서 메리 더글라스의 오염/청결 개념과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으로 에텐 시스템의 관리·통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또한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과 바라드의 ‘얽힘’ 개념을 통해 그 잔여를 윤리적·존재론적 사건으로 재해석한다. 이를 토대로 파괴된 관계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감응 윤리’의 세 원칙—① 관계의 권리, ② 책임의 명료화, ③ 한계 설정과 예방적 책임—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소멸세계』는 디스토피아적 경고를 넘어, 기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계 윤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텍스트임을 밝힌다.

키워드 : 무라타 사야카, 소멸세계, 감응 윤리, 생명정치, 관계의 권리, 타자의 얼굴

* 이 논문은 2023년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무라타 사야카의 『소멸세계』가 그리는 미래는 완벽한 ‘안전·효율’의 언어로 생명을 관리하는 세계다. 위생 이데올로기와 재생산의 의료·행정화는 사랑과 출생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지만, 이 논문은 바로 그 절연된 세계의 균열에서 터져 나오는 미세한 신호, 곧 ‘감응하는 생명’의 순간에 주목한다. ‘감응하는 생명’이란 개체의 자율·기능을 넘어, 대면에서의 접촉과 얽힘 속에서 서로를 변형시키는 살아 있음의 양식이다. 본고는 이러한 감응의 윤리를 조명하기 위해 메리 더글라스와 미셸 푸코가 분석한 통제장치(장치)를 살피고,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과 카렌 바라드의 인트라액션(intra-action)을 통해 관계적 생명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 1979~)는 2003년 군조 신인문학상으로 데뷔한 이래 미시마 유키오상(2013), 아쿠타가와상(2016)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며 일본 문단의 핵심 작가로 부상했다. 특히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2016, 文藝春秋)은 40개국 이상으로 번역되고 일본 내 누계 발행 부수가 170만 부(2025.5 기준)를 넘어서는 등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¹⁾ 이 작품은 작가의 실제 편의점 근무 경험이 녹아든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보통/정상성’의 규범 압력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작가의 핵심 문제의식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상성에 대한 탐구는 다른 작품에서 더욱 파격적인 방식으로 심화된다. 『지구별 인간(地球星人)』(2018, 新潮社)은 가족·결혼 규범과 신체·성의 금기(근친·식인 묘사 포함)를, 단편 「살인출산(殺人出産)」(『群像』 2014.5)은 열 명의 아이를 낳으면 한 명을 죽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통념과 윤리의 경계를 정면으로 겨눈다. 이러한 파격성은 국내외

1) 『コンビニ人間』170万部、『葉桜の季節に君を想うということ』100万部突破! -芥川賞受賞の世界的ベストセラー&最後の「映像化不可能小説」, 『文藝春秋』 2024.5.11., (https://prt-times.jp/main/html/rd/p/000000437.000043732.html?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25일 접속).

독자들에게 “충격적이지만 일관된 문제의식”이라는 평가와 “과잉 자극”이라는 양가적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냈다.²⁾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의점 인간』(2016, 살림)이 장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후 『소멸세계』(2017, 살림), 『살인출산』(『현대문학』, 2018), 『지구별 인간』(2022, 살림) 등이 연이어 번역 출간되며 무라타 사야카를 ‘문제적 작가’로 확실히 각인시켰다. 주요 서점 채널에서 장기 스테디셀러로 자리했고, 작가의 이력과 작품 주제(‘정상성’ 비틀기)가 언론 인터뷰·칼럼을 통해 널리 소개되었다. 작품 내의 모든 ‘파격적인’ 설정에 대해 ‘이런 일이 언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었다는 작가의 말처럼³⁾, 소재나 설정에 있어서의 파격은 괴이함을 넘어 왜곡된 세계처럼 보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회의 근원적 금기를 건드려온 작가의 문제의식은, 본고가 분석할 『소멸세계』에서 재생산 기술과 생명 관리의 문제, 즉 생명윤리의 영역으로 구체화되고 확장된다.

이러한 작가의 특징으로 인해 국내 무라타 연구는 주로 『편의점 인간』을 중심으로 격차 사회와 ‘정상성’의 규범을 비판하는 사회문화적 독해와⁴⁾, 비체·언캐니 개념으로 신체성의 경계를 탐구하는 흐름이 주를 이뤄왔다.⁵⁾ 전자는 비정규·저임금 노동과 ‘보통/정상’의 압력을 분석하며, 후자는 신체성·혐오 정동을 통해 규범의 경계 감각을 추적한다. 분석 대상이 『소멸세계』·『살인출산』 등 단편 연작까지로 확장되면서부터는 규범의

2) 「Earthlings by Sayaka Murata review」, *The Guardian*, 2020.11.4.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0/nov/04/earthlings-by-sayaka-murata-review-a-fizzing-tale-of-alienation?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25일 접속).

3) 「‘19세 미만 구독불가’?...무라타 사야카의 ‘살인출산’ 어떤 소설이길래」, 『경향신문』, 2018.2.16. (<https://www.khan.co.kr/article/201802161054001/>, 2025년 8월 25일 접속).

4) 홍윤표(2021),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에 투영된 격차 사회」, 『日語日文學研究』, 119, 215~239쪽.

5) 명혜영 (2021),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와 김애란 문학의 비체(abject)성—『편의점 인간』과 『비행운-하루의 축』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117, 293~312쪽; 이지형 (2022), 「정체성의 섬뜩한 계곡과 혐오의 전유법—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의 윤리」, 『일본연구』, 37, 200~234쪽; 兪在眞 (2018), 「村田沙耶香의 『コンビニ人間』を読む—『近代的自我』의 終焉—」, 『日本言語文化』, 43, pp. 243~258.

전복과 주체의 양가성 혹은 재생산 문제나 인류세·환경 비판의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⁶⁾ 특히 『소멸세계』를 기존 연구들은 현실을 반전시킨 실험소설로 규정하고⁷⁾, 그 안에서 구조의 해체와 유지가 공존하는 양가성을 포착해 왔다.⁸⁾ 또 여성 신체를 중심축에 두고 정상성의 폭력에 맞서는 작가론의 연장선에서 작품을 ‘재생산 거버넌스 소설’로 읽어내는 등⁹⁾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논의의 핵심을 ‘감응의 잔여(affective remainder)’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작품 속 위생 이데올로기와 행정 프로토콜이 사랑·성·번식을 청결/오염의 분류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포획되지 않고 새어 나오는 관계성의 신호를 포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감응은 관계적 감응성을 뜻한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 앞에서 시작되는 무한책임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며, 동시에 바라드가 말한 인트라액션(intra-action)—관계 맺음 속에서 경계가 생성되는 얽힘—이 보존·증폭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틈에서 『소멸세계』의 규범 언어(뉴스·세미나·안내문)는 얼굴을 익명화하고 기존의 얽힘을 재배치하는 장치로 읽히며, 본고는 그 틈에서 새어 나오는 신호를 권리·책임·선

6) 이상혁 (2021), 「수행적 주체의 현기증—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소멸세계』, 『살인출산』—, 『日本語文學』, 91, 201~232쪽; 이상혁 (2023), 「2010년대 이후 한일 마법소녀의 행방—무라타 사야카와 박서련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96, 147~172쪽; 신하경 (2024), 「무라타 사야카, 탈인간의 (불/)가능성을 묻다, 『日本學報』, 138, 211~247쪽; 하가 고이치 (2025), 「무라타 사야카의 작품들을 통해서 본 일본 현대문학과 인류세와의 거리—「도시를 먹다, 「생존, 「무해한 생물」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19, 1~46쪽.

7) 이 작품을 현실을 반전시킨 평행 세계의 실험소설로 규정하며, 교미=근친상간으로 간주되는 규범 역전을 핵심 설정으로 제시한다. (무라타 사야카 (2017), 「웁긴이의 말, 최고은(역), 『소멸세계』, 살림, 286~291쪽.)

8) 특히 이상혁은 무라타 문학의 핵심을 ‘구조의 해체와 유지가 공존’하는 양가성에 두고, 『소멸세계』, 『살인출산』 등을 2010년대 개인의 인식구조 속 ‘수행적 주체’ 문제로 논한다. 그의 요지는, 무라타의 텍스트가 기존 구조를 해체하는 듯 보이면서도 다른 기준의 재보증을 통해 구조를 다시 강화하는 전복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9) 신하경 (2024), 「무라타 사야카, 탈인간의 (불/)가능성을 묻다, 『日本學報』, 138, 211~247쪽.

/멈춤의 규범으로 번역한다.

특히 본고가 레비나스와 바라드 등 다소 낯설 수 있는 철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이유는, 무라타 사야카 문학, 그중에서도 『소멸세계』가 제기하는 질문의 근원성 때문이다. 작가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정상성’이라는 사회 규범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생명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재편하는 시대에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조건 자체를 묻고 있다. 작품 속 “삐거덕거리는 웃음”이나 “외로운 게 뭐예요?”라는 되물음은 단순한 심리 묘사나 사회 비판을 넘어, 윤리적 책임과 존재론적 엄함이 파괴되는 순간을 포착한 문학적 사건이다.

따라서 텍스트가 제기하는 근원적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본고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분석이나 서사 분석의 성과에 더하여 철학적 독해라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스템이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을 넘어, 그 통제가 인간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조건을 침식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철학적 언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므로 본고의 이론적 접근은 외부 이론을 텍스트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라타 사야카 문학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가장 충실하게 응답하기 위한 비평적 독해의 시도이다.

분석 대상인 『소멸세계』는 근미래의 실험도시 ‘에덴’을 무대로 한다. 이 세계에서는 성, 연애, 출산의 접점이 완벽히 분리되고, 재생산은 컴퓨터로 관리되는 인공수정과 센터에서의 공동 양육이라는 의료·행정 프로토콜로 대체된다. “모든 어른은 모든 아이의 엄마”이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표준화된 애정 표현인 “사랑의 샤워”를 내리는 것이다. 작품의 핵심 갈등은 ‘안전’과 ‘효율’을 명분으로 세워진 이 시스템의 언어가 어떻게 개인의 고유한 애착 관계와 감정을 침식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정상이라는 것만큼 소름 끼치는 광기”를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에덴 시스템’의 언어를 메리 더글라스의 오염/청결 개념과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생명을 재설계

하는 방식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이 시스템의 균열에서 드러나는 ‘감응의 잔여’들을 포착하고, 이를 레비나스와 바라드의 ‘엷힘’의 존재론을 경유하여 ‘관계의 권리’, ‘책임의 명료화’, ‘한계 설정과 예방적 책임’이라는 감응 윤리의 원칙으로 재구성해 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기술과 생명의 경계가 재구성되는 시대에 새로운 윤리를 모색하는 로지 브라이도티와 같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¹⁰⁾ 즉, 이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소멸세계』가 단순한 디스토피아적 경고를 넘어, 절연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함께 올리는 생명’을 복원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에덴 시스템’의 언어, 생명의 재설계

1. 분석의 무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소멸세계』의 서사 구조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 이후의 근미래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인간은 이미 ‘교미’를 불결한 행위로 규정하고 인공수정을 통해서만 출산한다. 어린 시절 주인공 아마네는 어머니로부터 “너는 섹스를 통해 태어난 아이야”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이 사회에서 부부의 섹스는 ‘근친상간’으로 여겨지고, 사랑·결혼·가족의 제도는 급속히 소멸했다. 아마네는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낙인을 자각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족과 출산을 신앙처럼 숭배한다.

아마네에게 가족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끈이자, 자신이 여전히 ‘정상적인 인간’임을 확인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가 점차 ‘교미’ 없는 생식을 당연시하는 방향

10) 이경란 (2019),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주체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하여」, 『탈경계인문학』, 26, 33~58쪽.

으로 흘러가면서, 그녀의 신념은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결국 부부는 국가가 설계한 실험도시 ‘에덴’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마네는 자신이 신앙처럼 붙들어 온 가족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인공적 시스템에 의존한 것인지를 목격한다. 이후의 서사는 ‘에덴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는 재생산 관리 체계와 그 균열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서는 『소멸세계』의 전체 서사 중 본고의 핵심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험도시 ‘에덴’의 설정과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의 무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멸세계』는 실험도시 ‘에덴’을 무대로, 성/연애/출산의 접점을 철저히 분리하고 재생산을 의료·행정 프로토콜로 편입한 세계를 그린다. 도시의 인구는 컴퓨터로 관리되고, 선정된 주민은 매년 12월 24일 일제히 인공 수정을 한다. 방송 앵커는 이를 “완벽하게 관리”¹¹⁾되는 출산 체계로 설명하고, 남성의 인공자궁 이식·임신 실험을 성과 지표처럼 보고한다. “인공 수정으로 출산된 아이들은 즉시 센터”에 맡겨지며, 열다섯이 되면 ‘수정 의무’를 이행할 성인으로 분류된다. 이 세계에서 모든 어른은 모든 아이의 ‘엄마’이며, 어른의 의무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샤워’¹²⁾를 내리는 것이다. 작품은 이 규범 언어를 뉴스·세미나 대본·안내문 등 제도적 문구로 반복 송출해 독자에게 ‘정상성의 음향’을 체감시키게 만든다.

화자 ‘나(아마네)’와 남편은 인공수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기뻐하고, 도시 전역이 출산을 위한 공장처럼 작동하는 풍경을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공원에서 본 아동과 직원의 획일화된 표정·말투는 이 체제가 애착의 질을 절차적 애정으로 치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 ‘엄마’는 울음을 터뜨린 아이에게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샤워’를 내려줘야지.”라고 훈계하며, 제도 언어가 감정의 어휘를 대체하는 장면이 노출된다.

동시에 이 세계는 사랑·섹스의 소거를 일상화한다. 화자는 “성욕을 처

11) 村田沙耶香 (2018), 『消滅世界』, 河出文庫, p. 130.; 무라타 사야카 (2017), 최고은(역), 『소멸세계』, 살림, 130~131쪽. 이하 인용은 한국어판을 기준으로 하고 일본어판 쪽수를 병기함.

12) 『소멸세계』, 205쪽. / 『消滅世界』 p. 204.

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지극히 단순한 기구들”과 취향별 디스크로 욕구를 관리하며, 매일 ‘아가’에게 사랑의 샤워를 내리느라 “편안하게 ‘섹스’할 시간”이 사라진 현실을 담담히 진술한다.¹³⁾ 연애는 추상적 애뜻함으로만 남고, 감각의 진동은 절차적 효율로 치환된다.

도시는 외부 방문객에게 GPS 팔찌를 채우는 규정 등 과감한 통제 장치를 도입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밀실”¹⁴⁾처럼 만든다. 남편은 이 실험 도시를 “실험용 쥐를 넣는 케이지”¹⁵⁾라고 직설적으로 명명하고, 화자는 어느 순간 “정상이라는 것만큼 소름 끼치는 광기”¹⁶⁾를 깨닫는다. ‘정상’의 문법이 도달하지 못하는 감응의 진동이 여기서 미세하게 솟아오른다.

2. 위생의 문법: 오염/청결의 경계짓기와 정상성

『소멸세계』의 ‘에덴 시스템’은 도덕적 판단을 위생의 언어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가 저서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r)』에서 제시한 오염(dirt)의 개념이다. 더글라스에게 ‘더러움’이란 단순히 비위생적인 상태가 아니라 ‘제자리를 벗어난 것(matter out of place)’을 가리키는 상징적 분류다.¹⁷⁾ 사회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 『소멸세계』에서 ‘제자리’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행정 프로토콜이며,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 특히 통제되지 않는 ‘성적 접촉’은 곧 ‘오염’이자 비위생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위생의 문법은 성(性)의 재배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등장인물 주리는 “조만간 섹스 같은 걸 굳이 찾아서 하는 사람도 사라질 거야. 비위생적이잖아”라고 단언하며, 자위기구를 쓰는 편이 “섹스보다 훨씬 청

13) 『소멸세계』, 230쪽. / 『消滅世界』 p. 224.

14) 『소멸세계』, 229쪽. / 『消滅世界』 p. 223.

15) 『소멸세계』, 177쪽. / 『消滅世界』 p. 172.

16) 『소멸세계』, 256쪽. / 『消滅世界』 p. 248.

17) Marry Douglas (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Routledge&Kegan Paul; 메리 더글라스 (2004), 김우주(역), 『순수와 위험: 오염과 터부의 개념에 대한 분석』, 동문선, 55쪽.

결하”라고 말한다.¹⁸⁾ 실제로 도시의 편의점에는 ‘성욕을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지극히 단순한 기구’와 취향별 디스크가 ‘생리용품 옆에’ 진열된다. 이는 성적 쾌락이 관계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배설이나 위생 관리의 차원으로 재분류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위생적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끊임없이 수행된다. 공원의 ‘아가’들과 직원들은 모두 같은 얼굴 근육을 써서 웃고, 같은 말투를 반복한다. 화자는 이 광경을 “균일하고 다루기 편한 ‘인간’을 제작하기 위한 공장”¹⁹⁾에 비유하며 시스템의 목적을 꿰뚫어 본다. 한 ‘엄마’가 우는 아이에게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샤워’를” 내리라고 훈계하는 장면은, 개별적이고 고유해야 할 애착의 감정이 어떻게 표준화된 구호와 절차적 애정으로 대체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유년기의 장면에서도 ‘정상성’은 이야기와 빛의 의례로 감각에 각인된다. 화자의 엄마는 “공주”와 “왕자”가 “서로 사랑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서사를 ‘올바른 세상’으로 반복해 주입한다(“네 영혼에 똑똑히 ‘올바른 세상’을 새겨 넣었으니까”²⁰⁾). 규범은 서사의 형태로, 그리고 집안 곳곳의 “붉은 램프의 빛” 같은 감각 장치를 통해 생활의 리듬이 된다.

이 ‘정상성의 음향’은 도시의 공적 언어에서 더 크게 울린다. 방송/안내문 역시 모든 어른의 의무를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샤워’를 내리는 것으로 전달하고, “엽서를 받으면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수정하여 번식에 육체를 제공할 것”²¹⁾을 요구한다. 이렇게 도덕의 언어가 위생·행정의 문구로 치환될 때, 사랑/성/번식의 접점은 완전히 재배치된다.

무엇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가’나 ‘엄마’라는 말은 이 세계의 핵심적인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단어들은 더 이상 혈연이나 고유한 애착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아가’는 개별 가정에 속한 아이가 아닌, 센터에서 집단으로 관리되는 익명의 존재들이다. ‘엄마’는 특정 아이를 향한

18) 『소멸세계』, 49~50쪽. / 『消滅世界』 p. 51.

19) 『소멸세계』, 204쪽. / 『消滅世界』 pp. 201~202.

20) 『소멸세계』, 8~9쪽. / 『消滅世界』 pp. 11~12.

21) 『소멸세계』, 206쪽. / 『消滅世界』 pp. 205~206.

무한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닌, 모든 성인에게 부여된 보편적이고 절차적인 돌봄의 역할을 지칭할 뿐이다. 도시의 모든 이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엄마’라 불린다. 이처럼 소설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를 비워냄으로써, 관계성이 파괴된 사회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경계짓기는 기존의 금기를 전복시키는 데서 정점에 달한다. 과거 사회의 기반이었던 ‘가족’ 내부의 성애는 이 세계에서 ‘근친상간’과 동일한 최악의 오염으로 간주된다. 사랑·섹스·출산의 연결고리가 의도적으로 파괴되면서, 가족은 정서적 유대의 단위가 아닌 행정적 기능으로만 남는다. 화자가 “‘가족’이라고 말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분명 이것은 종교다.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심이 돈독한 신자가 되어간다.”²²⁾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은 정상성의 의례, 즉 오염을 막고 청결을 보증하는 주문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결국 ‘에덴 시스템’은 오염/청결의 이분법을 통해 ‘자연 임신/섹스’를 통제 불가능한 오염으로, ‘인공수정/센터 양육’을 안전하고 청결한 절차로 정당화하는 셈이다. 도덕적 사유가 사라진 자리를 위생의 문법이 대체하는 것이다.²³⁾ 그리고 이러한 위생적 질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푸코적 의미의 생명정치, 즉 재생산을 의료화·행정화·표준화하는 통치 기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상성의 문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세 장치—의료화(기술·입상·수치), 행정화(선발·통지·감시), 표준화(일괄 일정·역할·

22) 『소멸세계』, 94쪽. / 『消滅世界』 pp. 96~97.

23) 이러한 위생의 문법은 로베르토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가 제시한 ‘면역(immunitas)’의 패러다임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공동체(communitas)가 타인에게 빛지고 서로에게 노출되는 개방성의 원리에 기반한다면, 면역(immunitas)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경계를 긋고 타자를 배제하는 보호의 논리다. 이런 관점에서 ‘에덴 시스템’은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접촉을 살균하고 격리하는, 즉 면역의 논리가 극단화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반면 본고가 앞으로 탐색할 ‘감응 윤리’는 바로 이 면역의 논리에 저항하며 공동체의 본질인 상호 노출과 응답의 책임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2012), 김상운(역). 『이무니타스: 생명의 보호와 부정』, 난장, 9~32쪽.)

정동)―가 그것이다. 이 삼중 장치는 푸코가 말한 생명정치의 기술이며, 『소멸세계』의 일상 언어 속으로 스며든다.

3. 생명정치의 장치: 재생산의 의료·행정화·표준화

앞서 살펴본 ‘위생’이라는 규칙은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에서 설명한 생명정치(biopolitics)의 장치를 통해 구체적인 통치 기술로 구현된다. ‘생명정치’란 국가가 인구의 출생, 건강, 수명 등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통치 기술을 의미한다.²⁴⁾

소설 『소멸세계』의 ‘에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생명정치’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회이다. ‘에덴’에서는 출산과 같은 생명 활동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한다. 병원 시스템, 정부 행정,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생명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든다. 국가는 방송, 세미나,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한다. 이때 ‘성과 지표’, ‘규정’ 같은 공식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국가의 통제가 당연하고 효율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 결과, 생명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 판단은 사라지고 오직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는지만 중요해진다. 결국 인간의 생명은 고유한 가치를 잃고, 국가가 마음대로 측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변수처럼 취급된다. 이러한 에덴의 생명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통치 기술을 통해 작동한다.

첫 번째 기술은 생명을 ‘의료화’(medicalization)하는 것이다. ‘에덴’에서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신비롭거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하나의 표준화된 ‘기술’일 뿐이다. 남성은 “인공자궁을 이식하여 수정”하고, 그 결과는 “500명이 착상 단계까지 성공하였고, 그중 네 명이 몇 개월 동안 자궁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성공”²⁵⁾했다는 식의 차가운 수치로 평가된다. 사랑의 감정은 임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로 취급되

24) Michel Foucault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e savoir*, Gallimard; 미셸 푸코 (2003), 이규현(역),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나남, 177~189쪽.

25) 『소멸세계』, 130~131쪽. / 『消滅世界』 pp. 129~130.

어 분리되고, 성욕마저 위생적인 기구로 처리된다. 이처럼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의료 기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생명은 관리 가능한 대상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 기술은 삶을 ‘행정화’(administration)하는 것이다. 의료 기술을 통해 관리 대상이 된 생명은, 마치 서류 작업처럼 행정 시스템을 통해 통제된다. 누가 아이를 가질지는 컴퓨터가 결정하고, 그 결과는 엽서 한 장으로 통보된다. 아이들은 센터에서 자라다 15살이 되면 ‘수정 의무’를 지닌 성인으로 자동 분류된다. 심지어 도시에 들어오는 방문객(외부인)에게는 GPS 팔찌를 채워 동선을 감시한다. 등록된 일정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경로와 움직임은 국가의 촘촘한 행정망 안에서 관리되고 재구성된다. 접촉과 동선이 규격화된 세계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세계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언어는 실험의 은유로 귀결된다. 실험도시는 그 실험에 쓰이는 ‘실험용 쥐를 넣는 케이지’이며, 가족이라는 개념은 새 시스템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는 자연스럽게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장치로 이어진다. ‘에덴’은 마치 거대한 공장처럼 모든 것을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하여 효율을 극대화한다. 모든 수정일은 “12월 24일”²⁶⁾로 똑같고, 모든 어른의 역할은 “모든 아이의 ‘엄마’”²⁷⁾로 동일하며, 심지어 애정 표현마저 ‘사랑의 샤워’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준화된다. 제도는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이 표준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주민들의 생각까지 관리하게 된다. 삶의 리듬, 관계 맺는 방식, 감정 표현까지 모두 하나의 틀에 맞춰지는 것이다.

결국 이 세 가지 기술, 즉 의료화, 행정화, 표준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에덴’이라는 거대한 생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 안에서 ‘좋은 삶’이나 ‘윤리’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효율’과 ‘안전’이라는 관리의 목표만 남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이 매끄러운

26) 『소멸세계』, 130쪽. / 『消滅世界』 p. 130.

27) 『소멸세계』, 199쪽. / 『消滅世界』 pp. 201~202.

시스템의 표면 위에서, 시스템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이 포획하지 못하는 미세한 불협화음, 즉 다음 장에서 다룰 ‘감응의 잔여’가 발생한다.

III. 설계의 균열과 감응하는 생명

『소멸세계』는 위생과 생명정치(生命政治)의 장치를 통해 구축된 ‘절연의 세계’²⁸⁾를 그리지만, 그것을 단순한 디스토피아로만 제시하지는 않는다. 시스템이 세계를 매끄럽게 덮어갈수록, 작품은 역설적으로 그 통제가 포획하지 못하는 미세한 생명의 신호, 즉 ‘감응의 잔여’를 서사 표면으로 끌어 올린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신호가 체제 외부의 저항이 아니라, 방송 멘트, 세미나 대본과 같은 체제의 언어와 동일한 표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의 균열이 외부의 파열음이 아닌, 내부 공명의 미세한 어긋남임을 보여준다.

1. 감응의 신호들: 시스템의 균열을 알리는 작은 소리

‘에덴 시스템’은 겉보기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설은 바로 그 완벽함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균열의 순간들을 세심하게 포착한다. 본고가 ‘감응의 신호’라 명명하는 이 순간들은, 동시대 ‘정동 이론’의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는 정동(affect)을 개인의 서사나 인지로 포착되는 ‘감정(emotion)’과 구분되는, 언어 이전의 신체적 강도(intensity)이자 잠재

28) 본고에서 사용하는 ‘절연(絶緣)의 세계’는 단순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넘어, 외부의 위협(오염, 감염, 예측 불가능한 타자)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전과 청결을 보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차단하고 격리하는 세계를 지칭한다. 이는 로베르토 에스포지토가 분석한 ‘면역’의 논리가 극단화된 상태와 같다. 면역이 공동체의 본질인 상호적 빚집과 노출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에덴 시스템’은 ‘감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유지된다. 따라서 ‘절연’은 본고의 또 다른 핵심어인 ‘감응’과 대립하며, 시스템의 통제 원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어이다.

성으로 설명한다.²⁹⁾ 정동이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비인격적인 힘이라면, 감정은 그 힘이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포획되어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멸세계』의 인물들이 느끼는 미세한 위화감, 불편함, 그리고 사소한 어긋남은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감정이라기보다, 시스템의 매끄러운 논리가 신체에 가하는 압력에 저항하며 발생하는 ‘정동적(affective)’ 사건에 가깝다. 이는 거대한 저항이나 반란이 아니라, 시스템이 통제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신호가 신체의 표면 위로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다.

이는 거대한 저항이나 반란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미세한 위화감, 불편함, 그리고 사소한 어긋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순간들, 즉 시스템이 통제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신호가 바로 ‘감응의 신호’라 할 수 있다.

먼저 그 신호는 ‘소리’를 통해 포착된다. 작품 속 공원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고도로 통제된 공간이다. 모두가 같은 머리 모양과 표정, 말투를 공유하며 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한다. 바로 그 순간, 한 ‘엄마’가 우는 아이를 안으며 시스템의 공식 언어를 되풀이한다.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샤워’를 내려줘야지.”
남편의 웃음소리가 마치 세상이 삐거덕거리는 이질적인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³⁰⁾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남편의 웃음은 조화로운 화음이 아닌 “삐거덕거리는 이질적인 소리”로 묘사된다. 이는 시스템의 매끄러운 작동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잡음이다.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연기하도록

29) Brian Massumi (2002),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ke University Press; 브라이언 마수미 (2024), 이수진(역). 『가상적인 것의 우화들: 운동, 정동, 감각』, 갈무리, 27~71쪽.

30) 『소멸세계』, 205쪽. / 『消滅世界』 p. 201.

강요받는 순간, 그 틈에서 새어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소음으로 들리게 된다. 이는 감응이 청각적 어긋남을 통해 처음으로 감지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또 그 신호는 ‘촉각’, 즉 피부의 감각을 통해 파악된다. 화자는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공원에서 만난 ‘아가’를 안아 올리며 그 의무를 수행하려 한다. 시스템의 논리대로라면 그녀는 보편적인 사랑과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낸다.

당혹스러운 따름이었지만, 나는 다가온 아이 중 내 치맛자락을 꼭 붙잡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체온이 높고 찰떡처럼 보드라운 아이의 몸은 왠지 불쾌한 느낌이었다.³¹⁾

‘사랑의 샤워’라는 공식적인 감정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피부는 “불쾌한 느낌”을 감지한다. 머리로는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려 하지만, 몸은 그 표준화된 애정이 진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이는 규격화된 친애가 실제 신체의 반응을 대체할 수 없으며, 애착의 질적 결핍이 피부의 감각을 통해 폭로되는 순간이다.

‘언어의 공백’을 통해서도 그 신호는 드러난다. 시스템의 통제는 감정뿐 아니라,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까지 관리한다. 주인공은 공동현관에서 만난 ‘아가’에게 무심코 안부를 묻는다.

“센터 생활은 어때? 오늘은 뭘 먹었니? 외롭지는 않고?”

별생각 없이 물었음 뿐인데, ‘아가’는 의아한 듯 동그랗고 새카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외로운 게 뭐예요?”

나는 화들짝 놀라 유리구슬 같은 ‘아가’의 새카만 눈동자를 마주 보

31) 『소멸세계』, 200쪽. / 『消滅世界』 p. 196.

았다.

“외롭다는 건…… 그건 말이지…….”

그 감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가웃거렸다. 머리로 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감각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고독’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른다.³²⁾

“외로운 게 뭐예요?”라는 되물음은 소설 속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이다. ‘에덴’에서 자란 아이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시스템이 개인의 고유한 정서를 지우고, 그 자리를 관리 가능한 언어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감응의 신호는 ‘존재’가 아닌 ‘부재’, 즉 당연히 있어야 할 언어가 사라져 버린 그 공백 자체에서 발생한다.

제도가 삭제해 버린 감각이 잔향으로 살아남는 장면도 있다. 주인공은 “내 안에 냉동된 발정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말한다. “이곳이 사랑 없는 세상이라 해도 지금까지 몸속에 축적된” “내 안에 냉동 보존된 ‘연정’을 꺼내 바라보며”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생각한다.³³⁾ 섹스가 위생과 기구의 언어로 관리되더라도, 욕망의 미세한 떨림은 아직-지워지지-않은 파일처럼 저장되어 있다.

이처럼 소설은 다양한 감각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협화음들을 통해, 완벽해 보이는 설계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균열을 감지하고 또 균열을 일으키는 인물은 주로 어른들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세대 차이나 경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기억·몸의 감각·언어와 제도의 경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아마네는 어머니의 언표를 통해 ‘사랑-출산-가족’이 이어져 있던 세계의 흔적을 품고 성장한다. 그 기억은 ‘에덴’의 표준 문구와 충돌하며 균열의 첫 신호가 된다. 또한 공원 장면에서 묘사되는 촉각과 청각의 어긋남—아이의 “높은 체온과 설명되지 않는 불쾌함”, 남편의 웃음이 들

32) 『소멸세계』, 277쪽. / 『消滅世界』 p. 268.

33) 『소멸세계』, 207~208쪽. / 『消滅世界』 p. 203.

려주는 “세상이 삐거덕거리는 소리”—은 제도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몸의 기억을 드러낸다. 아이들이 “외로운 게 뭐예요?”라고 되묻는 장면에서 보듯, 새로운 세대가 이미 정동의 어휘를 잃어버린 세계에서, 어른만이 여전히 언어를 통해 불협을 감지하고 말할 수 있다. 바라드의 ‘얽힘 (intra-action)’으로 본다면, 어른은 과거의 애착과 현재의 제도 사이의 경계 위에서 있는 존재이며, 바로 그 중첩된 위치에서 재배치의 실패를 감각한다. 따라서 어른의 균열은 저항이라기보다 관계적 감응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흔들림이며, 그 흔들림이 윤리적 사유의 출발점이 된다.

2. 감응의 존재론: ‘타자의 얼굴’과 ‘얽힘’의 윤리

소설은 판단을 유예하는 상태를 ‘도중’으로 명명한다. “우리는 언제나 ‘도중’에 있다. 어떤 세상에 세뇌되더라도, 그것으로 누군가를 심판할 권리 같은 건 없는 것이다.”³⁴⁾ 이 도중의 시간은 레비나스적 의미의 응답 가능성을 보존하는 틈이며, 동시에 바라드가 말한 얽힘의 경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따라서 위의 불협화음(웃음·표정·언어의 공백)은 개인 심리의 이상이 아니라 관계의 재배치가 실패하는 존재론적 사건으로 읽혀야 한다. 감응은 여기서 타자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본고에서 말하는 ‘감응’은 관계적 감응성—곧 타자의 얼굴이 제기하는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레비나스)—이며, 그 발생·소멸은 얽힘의 재배치(바라드)에서 가늠된다.

앞서 살펴본 감응의 신호들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윤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윤리학과 카렌 바라드(Karen Barad)의 신유물론을 함께 살펴볼 때 더욱 선명해진다. 두 사상가는 윤리와 존재의 근원을 ‘나’의 바깥, 즉 관계 속에서 찾기 때문이다.

34) 『소멸세계』, 158쪽. / 『消滅世界』 p. 155.

먼저 레비나스의 논의부터 살펴보자. 레비나스는 윤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는 윤리가 법이나 규칙, 혹은 ‘나’ 자신의 양심에서 비롯된다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다. 레비나스에게 윤리는 오직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만 시작된다.³⁵⁾ 그리고 그 만남의 핵심에는 ‘타자의 얼굴(Visage d'autrui)’이라는 개념이 있다. 여기서 ‘얼굴’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 코, 입이 달린 물리적인 얼굴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중단시키며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저항할 수 없는 타인의 현존 그 자체이다. 레비나스는 이 ‘얼굴’이 두 가지의 모순된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한다. 첫째로, 얼굴은 아무런 무장 없이 나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연약하다. 얼굴은 그 자체로 “나를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요청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한 호소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처럼 나에게 다가온다.³⁶⁾

이처럼 연약하면서도 절대적인 얼굴과의 마주침 앞에서, ‘나’는 타인을 향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윤리적 존재로 비로소 태어난다. 이 책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텐 시스템’이 행하는 폭력의 본질이 드러난다. ‘에텐 시스템’의 목표는 바로 이 불편하고 예측 불가능한 ‘얼굴과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모든 아이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가’라는 대상으로 만들지만, 그들이 나에게 절대적인 윤리적 책임을 명령하는 고유한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은 거부한다. 모두에게 똑같이 베푸는 보편적이고 위생적인 사랑, “사랑의 샤워”는 바로 이 구체적이고 무한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인 셈이다.

35) 김영걸 (2020), 「레비나스 : 윤리적 관계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과 무한책임」, 『대동철학』, 90, 53~78쪽.

36) Emmanuel Levinas (1961),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Martinus Nijhoff; 에마뉘엘 레비나스(2018), 김도형 외(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그린비. 231~237쪽.

이러한 레비나스의 시선으로 볼 때, 소설 속 감응의 신호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주인공이 아이를 안으며 느꼈던 “불쾌한 느낌”은, 고유한 ‘얼굴’이 지워진 익명의 존재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윤리적 공허함의 신체적 표현이다. 또한 남편의 “삐거덕거리는 웃음소리”는 모든 얼굴을 지우고 균일한 감정만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통제되지 않는 한 ‘얼굴’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카렌 바라드의 논의는 이러한 윤리적 사건이 어떻게 물질적 세계와 얽혀 발생하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보게 한다. 바라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나중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라드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한다. 그의 핵심 저서 『우주를 반쯤 만나다(Meeting the Universe Halfway)』에 따르면, 세상은 애초부터 분리 불가능한 ‘얽힘(entanglement)’ 그 자체이다.³⁷⁾

바라드는 ‘상호작용’ 대신 ‘인트라액션(intra-action, 행위 내 작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상호(inter)’가 아닌 ‘내(intra)’라는 접두사를 쓰는 이유는, 존재들이 관계를 맺기 이전에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 맺음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지금의 모습으로 경계가 그어지고 생성되기 때문이다. 즉, 관계가 존재보다 앞선다.³⁸⁾

이러한 바라드의 관점에서 ‘에텐 시스템’은 하나의 거대한 ‘존재론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랑, 섹스, 출산, 돌봄이라는 기존의 자연스러운 ‘얽힘’을 폭력적으로 끊어내고(disentanglement), 그 자리에 ‘안전’과 ‘효율’이라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세계를 인위적으로 다시 얽어내려는(re-entanglement) 시도이다.³⁹⁾ ‘에텐 시스템’은 기존의 얽힘을 파괴한

37) Karen Barad (2007), “ch.7. Entanglements and Reconfigurations”,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pp. 333~396.

38) Karen Barad(2007), “ch.4. Agential Realism: An Ethics of Mattering”,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pp. 132~188.

뒤, ‘엄마-아가-센터’라는 새로운 관계로 주민들을 재구성한다. 남편의 “삐거덕거리는 웃음소리”나 주인공의 “불쾌한 느낌”은 바로 이 인위적인 재구성이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시스템이 배제해 버린 얽힘의 흔적이 계속해서 신체의 감각을 통해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론적 증거이다.

결국 레비나스와 바라드의 사유는 『소멸세계』의 감응 신호들을 해석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 레비나스가 고유한 타자와의 마주침이라는 윤리적 사건의 강렬함을 설명한다면, 바라드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얽힘의 구조를 보게 해준다. ‘에텐 시스템’은 고유한 ‘얼굴’을 지우고 모든 ‘얽힘’을 표준화함으로써 윤리적 책임을 제거하려 한다. 따라서 “정상이라는 것만큼 소름 끼치는 광기”라는 주인공의 깨달음은, 모든 것을 매끄럽게 관리하려는 정상성의 논리가 실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윤리적, 존재론적 조건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외침인 것이다.

IV. ‘에텐 시스템’을 넘어서: 감응 윤리의 규범적 제안

2장에서는 『소멸세계』의 ‘에텐 시스템’이 위생과 생명정치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지를 분석했다. 이어 3장에서는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의 균열 속에서 시스템이 결코 포획하지 못하는 ‘감응의 잔여’를 발견하고, 이를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과 바라드의 ‘얽힘’이라는 철학적 틀로 해석했다. 이제 4장에서는 분석을 넘어 규범적 제안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3장에서 포착한 ‘감응’의 신호들을 구체적인 윤리의

39) Disentanglement(풀어내기, 탈얽힘)은 이 ‘행위적 절단’을 통해 기존의 얽힘 상태에서 특정 관계들을 일시적으로 풀어내어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Re-entanglement(다시 엮기, 재얽힘)은 한번 풀어낸 관계를 새로운 규칙에 따라 다시 엮어내는 과정이다. 이 두 개념 모두 바라드의 저서 4장과 7장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다.

언어로 번역하고, ‘에덴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관계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적 설계 원칙을 모색하는 것이 이 장의 목표이다.

이 장에서 제안할 ‘감응 윤리(ethics of resonance/affect)’란, ‘안전’이나 ‘효율’과 같은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타자와의 구체적인 만남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존재론적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유 방식이다. 즉,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이 제기하는 무한한 책임에 응답하고, 바라드가 강조한 복잡한 ‘얽힘’의 관계성을 보존하고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리이다. 이는 시스템의 매끄러운 작동이 아니라, 관계의 고유성과 깊이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1. 관계의 권리: ‘시민 종교’를 넘어 ‘얼굴’의 윤리로

‘에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족’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성하지만 텅 빈 종교적 언어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 있다. 화자가 앞서도 “‘가족’이라고 말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분명 이것은 종교다.”라고 고백하듯, 이 세계에서 가족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주문에 가깝다.

이 ‘시민 종교’⁴⁰⁾는 “모든 어른은 모든 아이의 엄마”이며 “아이들에게 ‘사랑의 샤워’를 내려야 한다”는 식의 교리를 뉴스, 세미나, 안내문을 통해 끊임없이 전파한다. 하지만 이 보편적 사랑의 약속은, 역설적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계를 파괴한다.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얼굴’을 지우고 모두를 익명의 역할(‘아가’, ‘엄마’)로

40) 작품 속 가족 담론은 사랑의 귀결이라기보다, 불안을 관리하는 의례/주문으로 작동한다. 화자는 “가족”을 되뇌며 안정을 얻고(“그 주문을 외울 때마다 내 마음은 안정”), 제도와 행정의 설계는 그 주문을 공영 양육과 수정 의무 같은 절차로 객관화한다. 이를 로버트 벨라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 개념으로 보면, ‘가족’은 제도와 신앙의 경계에서 규범적 구속력을 획득하는 성역화된 언어다. 바로 이 성역화가 관계적 감응성의 침식을 은폐한다—관계의 질과 애착의 구체성이 ‘보편적 사랑’과 ‘사랑의 샤워’라는 표준 문구로 대체되는 순간, 감응은 측정 가능한 효율에 밀려난다. 이 작품에서 ‘에덴 시스템’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시민 종교’로 명명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자발적 사랑이 아니라 국가적 통합과 정상성 유지를 위해 의례화되고 강제되는 신념 체계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ロバート・ベラ (1973), 河合秀和(訳), 『社会変革と宗教倫理』, 未来社, 参照.)

대체하는 과정이다. 나에게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사라진 자리에, 누구에게도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랑의 샤워’라는 의례만 남는다.

이러한 ‘얼굴 지우기’의 비극적 결과는 아이의 질문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주인공이 무심코 던진 “외롭지는 않고?”라는 질문에, 아이는 “외로운 게 뭐예요?”라고 되묻는다. 특정 타인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감정인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멸한 세계. 이는 윤리적 책임 관계가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이다. 공원의 아이들이 마치 “균일하고 다루기 편한 ‘인간’을 제작하기 위한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은 표정을 짓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감응 윤리’의 첫 번째 원칙은, 시스템의 텅 빈 구호를 넘어 사라진 ‘관계의 권리(the right to relation)’를 복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의 권리’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권리를 넘어, 특정한 타자와의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시간 속에서 지속하며, 상호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에 온전히 응답할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애착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어른이 모든 엄마’라는 ‘에덴’의 구호는 언뜻 들으면 이상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도 한 아이에게 온전한 엄마가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어제 아이를 안아주었던 ‘엄마’와 오늘의 ‘엄마’가 달라도 괜찮은 세계에서는, 관계의 역사나 깊이가 쌓일 수 없다. 따라서 ‘관계의 권리’는 한 아이가 특정 양육자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권리는 관계를 맺을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원치 않는 관계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을 포함해야 한다. ‘에덴’의 주민들에게 ‘엄마’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주어진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상호적인 선택과 동의를 통해 싹튼다. 그러므로 개인

은 자신이 깊은 유대를 맺을 대상을 선택할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제도적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권리’는 개인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관계 파괴를 최소화할 의무’를 부여한다. ‘에덴’의 시스템은 효율성을 위해 언제든지 개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재배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맺어온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응 윤리’의 관점에서 제도는 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즉,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이 기존에 형성된 중요한 애착 관계를 파괴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 파괴를 최소화할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덴 시스템’의 ‘가족’이라는 종교는 감응의 빈곤을 대가로 얻은 거짓 안정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주문을 권리의 언어로 재배치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이 ‘관계의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개인이 익명의 존재가 아닌 고유한 ‘얼굴’을 가진 타자와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2. 책임의 명료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책임의 주소가 사라질 때, 아이는 모두의 것이 되면서 동시에 아무의 것도 아니다. 남편은 “내 아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결국 인류의 ‘아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발화는 돌봄의 책임을 집단으로 분산시켜, 누구도 구체적 타자에게 온전히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정당화한다.

신생아 센터의 풍경은 이를 더 구체화한다. 유리창 너머 “생명의 양배추밭”은 “우리는 세상에 진열된 생명”이라는 인식을 호출하고, 간호사는 “타이밍이 맞았다”며 아이를 “안아보실래요?”라고 건넨다.⁴¹⁾ 돌봄이 익명의 순환 절차로 전환된 장면이다. 이런 장면들을 함께 배치하면, 네가 말하는 ‘책임의 명료화’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특정 장면의 윤리적 분석으로 뚜렷해진다.

41) 『소멸세계』, 263~264쪽. / 『消滅世界』 p. 254.

‘에덴 시스템’처럼 거대하고 자동화된 체계가 생명을 관리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바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이다. 『소멸세계』가 보여주는 에덴의 풍경은 이 질문에 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다. 시스템의 언어는 ‘안전’과 ‘효율’을 약속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책임의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응 윤리’의 두 번째 원칙은 이 공백을 메우는 것, 즉 ‘책임의 명료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먼저, 시스템은 ‘동의’의 과정을 의례(ritual)처럼 만들어 책임을 흐릿하게 만든다. 주민들은 컴퓨터에 의해 선정되고, “11월 중순”에 엽서를 받으며, “12월 24일에 일제히 인공수정”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는 깊은 숙고를 거친 주체적 결단이 아니라, 정해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적 서명으로 전락한다. 시술대에 누운 주인공에게 의사가 건네는 “착상 확률도 거의 100퍼센트”, “하나도 안 아프다”와 같은 말들은⁴²⁾, 진정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안심’의 언어에 가깝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고유한 불안에 응답하는 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인 통보이다.

시스템이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시스템은 남성 임신을 ‘인류 최초의 성공’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편이 느끼는 “실험동물이 된 기분”이라는 끔찍한 현실은 철저히 은폐된다.⁴³⁾ 나아가 병원은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면회와 취재를 모두 막아버리는데, 이는 남편의 고통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통제 장치였다. 결국 한 개인의 구체적인 고통과 경험은 시스템의 ‘성과’라는 거대한 이야기 아래 덮이고,

42) 『소멸세계』, 215쪽. / 『消滅世界』 pp. 206~208.

43) 『소멸세계』, 245쪽. / 『消滅世界』 pp. 249~250. 남편이 자학적인 말투로 말하지만,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자랑하는 듯했다. 이를 보고 화자는 “실상 남편은 실험동물이었다. 그래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속으로 삼”키고 만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수정으로 출산된 아이들은 즉시 센터에 맡겨집니다”라는 문장은, 한 아이를 길러낼 구체적인 양육의 책임을 ‘센터’라는 익명의 행정 시스템에 떠넘긴다. 남편이 “‘내 아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아무리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결국 인류의 ‘아가’라고”⁴⁴⁾ 말하는 순간, 책임은 모두의 것이 되어 역설적으로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된다. 이는 양육 책임의 분산을 정당화하는 슬로건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개별 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 자산’의 언어로 희석한다. 책임의 소재는 분산되고, 그만큼 책임의 실체는 흐릿해진다.

따라서 ‘책임의 명료화’라는 윤리적 원칙은, 이처럼 교묘하게 분산되고 증발해 버린 책임의 경로를 다시 드러내고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주체를 찾아내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 탄생이라는 복잡한 ‘얽힘(entanglement)’ 속에서 각 주체(개인, 의료진, 시스템 설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경로를 투명하게 추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윤리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동의’의 개념을 단 한 번의 서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에덴 시스템’에서 동의가 행정적 절차의 일부로 축소되는 것과 달리, 책임이 명료한 시스템은 시술 전-중-후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보장한다. 참여자가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마음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다시 표현하고, 원한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정보 역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투명하고 균형 잡힌 ‘소통’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책임 있는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위험까지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성공률과 장점뿐만 아니라, 실패 가능성, 단기적·장기적 부작용, 그리고 다른

44) 『소멸세계』, 257쪽. / 『消滅世界』 pp. 257~258.

선택 가능한 대안들까지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는 참여자를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불안과 질문을 가진 하나의 ‘얼굴’로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의 기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책임의 경로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 ‘에텐’에서 남성 임신처럼 고위험·고불확실성의 실험이 진행될 때, 그 결과는 오직 ‘연구 성과’로만 남고 개인의 고통은 지워진다. 책임의 명료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그 고통에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장기적인 건강 추적, 심리적 지원, 피해보상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인류의 자산’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 한 개인의 삶이 소모되지 않도록, 책임의 시간을 미래로 확장하는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 생명의 탄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한 사람의 고통과 관계의 무게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책임의 명료화’는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려는 윤리적 시도이다.

3. 한계 설정과 예방적 책임의 윤리

『소멸세계』에서 남성 임신에 최초로 성공한 남편이 주인공에게 던지는 말은 시스템의 논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내 아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결국 인류의 ‘아가’라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에텐 시스템’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공백을 동시에 목격한다. ‘감응 윤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어디이며, 우리가 무엇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 기준선은 관계적 감응성이다. 곧 타자의 얼굴 앞에서의 응답 가능성, 그리고 얽힘 속에서 생명이 함께 발생한다는 감각을 보존·증폭하는 능력이다. 이 기준은 요나스의 책임 윤리(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선제적 책임)와 의료윤리의 규범 통과도 합(습)을 이룬다.⁴⁵⁾ 기술은 가능해지는

순간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감응성을 침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인간성의 근본적인 조건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적 개입에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소설 속 주인공이 유산했을 때, 의료진은 조금의 공감도 없이 “원래 이 시기쯤 되면 유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까지 포함해 관리하고 있죠.”⁴⁶⁾라며 그녀의 고통을 시스템의 통계 데이터처럼 취급한다. 시스템 안에서 한 개인의 상실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사건일 뿐인 것이다. 출산 직후 아이를 “즉시 센터”로 보내는 절차는 이러한 논리의 정점에 있다. 이는 한 아이와 양육자가 맺는 최초의 고유한 관계, 즉 인간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을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희생시키는 행위이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부재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소설 속 아이들의 “균일하고 다루기 편한” 모습이 암시한다. 따라서 감응 윤리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인간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에는 넘어서는 안 될 윤리적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12월 24일”로 통일된 일괄 시술은 행정 효율을 위해 관계의 리듬을 표준시간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므로, 개인·관계 단위의 조정 권한을 제도에 다시 끼워 넣어야 한다. “정상이라는 것만큼 소름 끼치는 광기”라는 자각은 바로 이 삭제의 결과—숫자와 절차가 관계의 사건성을 대체한 자리—를 가리킨다.

또한, 장기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예방적 책임’의

45) 여기서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들은 기술 시대의 윤리를 정립한 철학자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그의 저서 『책임의 원칙 (Das Prinzip Verantwortung)』(1979)에서 제시한 성찰에 깊게 기반한다. 요나스는 현대 기술이 인류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공포의 발견술(heuristics of fear)’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먼저 상상하고 그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본고의 ‘한계 설정’과 ‘예방적 책임’은 바로 이 요나스의 사유를 『소멸세계』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Hans Jonas,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n Ethics for the Technological Age*. Translated by Hans Jonas with the collaboration of David Her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한스 요나스 (2004). 이진우(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2004.)

46) 『소멸세계』, 221~222쪽. / 『消滅世界』 p. 216.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설 속 남성 임신은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한 “최초의 성공”으로 위대한 성공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은 스스로를 “실험동물이 된 기분”이라고 느끼며, 그의 몸과 경험은 오직 시스템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데이터로 전락한다. 그의 고유한 고통과 그로 인해 파괴되는 부부 관계는 ‘최초의 성공 사례’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무시된다. 만약 ‘에덴’의 설계자들이 윤리적 책임을 우선했다면, 기술적 성공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 기술이 개인의 존엄성과 관계의 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은 이 질문을 생략한 채 기술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한 개인의 삶을 ‘연구 성과’의 제물로 삼는 윤리적 과오를 범한다.⁴⁷⁾

결국 『소멸세계』는 책임에 대한 질문이 제거된 기술 유토피아가 어떻게 인간 소외의 비극으로 귀결되는지를 생생하게 그리는 소설이다. 작품이 보여주는 인물들의 고통과 관계의 파괴는, ‘안전’과 ‘효율’만으로는 결코 좋은 삶을 설계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감응 윤리가 제안하는 ‘한계 설정’과 ‘예방적 책임’은, 소설의 비극적 서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지혜인 셈이다.

V. 결론

『소멸세계』는 청결(위생)의 문법과 행정의 기술이 생명을 얼마나 매끈하게 정돈할 수 있는지를 시연하면서도, 그 매끈함이 포획하지 못하는 관계적 감응성의 진동을 서사 표면에 남긴다. “완벽하게 관리”되는 출산 체계, “즉시 센터” 등으로 요약되는 표준 문구는 사랑·성·번식의 접점을 해체해 안전·효율의 언어로 치환하지만, 작품은 그 치환의 틈에서 새어나

47) 병원이 ‘보호’를 이유로 면회·취재를 차단하며 배우자에게만 특별 출입증을 발급하는 장면도 성과 중심 서사가 어떻게 정보의 공공성과 경험의 서사를 소거하는지 보여준다.

오는 미세한 불협화음을—“세상이 삐거덕거리는” 웃음, 피부에 남는 “불쾌한 느낌”, “외로운 게 뭐예요?”라는 공백의 말—집요하게 포착한다. 본고는 이 진동을 세계-설계의 균열로 읽고, 감응을 ‘타자의 얼굴 앞에서의 응답 가능성’과 ‘엄힘의 재배치’ 차원에서 개념화했다.

2장에서 확인했듯, 이 세계는 오염/청결의 경계짓기와 생명정치의 장치(의료화·행정화·표준화)가 결박되며, 재생산과 돌봄을 관리 가능한 생명의 체계로 환원한다. “12월 24일 일제 시술”, 출산 직후 “즉시 센터” 위탁, “모든 어른=모든 아이의 ‘엄마’” 및 “사랑의 샤워” 같은 표준 문구는 삶의 리듬·역할·정동을 하나의 규격으로 동기화한다. 그 결과 도덕 판단은 임상·행정·표준의 지표 체계로 대체되고, 관계의 질은 절차적 애정으로 치환된다. 그러나 바로 그 언어의 평탄화가 삐거덕거리는 웃음, 피부의 불쾌, “외로운 게 뭐예요?” 같은 미세한 어긋남을 낳는다는 점을 작품은 집요하게 보여준다.

3장은 이 불협화음을 윤리·존재론적 사건으로 재해석했다.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타자의 얼굴은 나의 동일화와 계산을 중단시키는 요청이며, 그 앞에서 우리는 먼저 응답 가능한 자가 된다. 바로 이 대면이 제거될 때, 보편 사랑의 의례는 구체적 애착의 시간을 공백으로 만든다. 동시에 바다드의 인트라액션은 사랑-출산-돌봄의 엄힘이 제도적 재배열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설명한다. 작품이 포착한 청각·촉각·언어의 미세한 어긋남은, ‘엄마-아기-센터’로 재구성된 세계가 실제 몸과 감각의 층위에서 완결될 수 없다는 존재론적 증거였다. 이러한 독해를 통해, 본고는 작품의 균열을 관계적 감응성의 침식이 감지되는 장면으로 묶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시스템이 소거한 개인의 고유한 ‘얼굴’과 관계의 ‘엄힘’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감응 윤리’의 구체적인 설계 원칙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시스템의 보편적 사랑이라는 허울을 걷어내고 ‘관계의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특정 타자와의 대체 불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권리, 즉 안정적인 ‘애착의 연속성’과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익명의 ‘아가’나 ‘엄마’가 아니라 고유한 얼굴을 가진 존재로 서로를 마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거대 시스템이 드리우는 무책임의 그늘을 걷어내고 ‘책임의 명료화’를 이뤄내야 한다. 일방적 통보로 전락한 동의 과정을 ‘지속적인 대화’로 복원하고, 불확실성까지 공유하는 ‘투명한 소통’을 의무화하며, 실패의 고통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함께 책임지는 ‘사후 책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기술 발전의 무게를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윤리적 안전장치다.

마지막으로, 기술 만능주의의 환상에 제동을 걸고 ‘한계 설정과 예방적 책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인간 발달의 근간을 파괴하는 기술에는 단호한 ‘윤리적 한계’를 설정하고, 남성 임신처럼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기술에는 선부른 성공 선언보다 ‘예방적 책임’의 관점에서 신중한 숙고를 우선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본고가 채택한 철학적 독해의 유효성이 드러난다. 기존의 사회 비판적 독해가 ‘에텐 시스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데 성과를 보여주었다면, 본고의 철학적 접근은 그 비인간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레비나스의 ‘얼굴’ 개념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소멸이 단순한 감정의 부재가 아닌, 타자를 향한 무한책임이라는 윤리적 조건의 파괴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바라드의 ‘엄힘’의 존재론은 시스템의 표준화가 단지 사회적 획일화가 아니라, 사랑-출산-돌봄으로 이어지는 존재론적 관계망을 폭력적으로 재편하는 사건임을 보게 했다. 이처럼 본고의 철학적 독해는, 무라타 사야카의 문학적 성취가 단순히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것을 넘어, 감각과 언어의 미세한 균열 속에 깊은 윤리적·존재론적 질문을 새겨 넣는 데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소멸세계』의 질문에 ‘감응 윤리’가 내놓는 응답은 명료하다. 진정한 진보는 더 매끄러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균열 속에서도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고통에 응답하려는 윤리적 태

도를 잃지 않는 데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그 태도를 구체적인 제도로 번역하려는 시도이며, 기술과 인간이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공존의 방식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청사진이다. 『소멸세계』의 이야기는 단지 소설적 상상력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결국 기술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그 기술이 타자의 얼굴 앞에 선 우리를 얼마나 더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절연된 세계 속에서 ‘함께 올리는 생명’을 복원하는 첫걸음이다.

참고문헌

- 이경란 (2019),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주체와 비판적 포스트휴먼
니즘을 향하여」, 『탈경계인문학』, 26, pp. 33~58.
- 김영걸 (2020), 「레비나스: 윤리적 관계 안에서의 타자의 얼굴과 무한책임」, 『대동철학』,
90, pp. 53~78.
- 명혜영 (2021),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와 김애란 문학의 비체(abject)성—『편의
점 인간』과 『비행운-하루의 축』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117,
pp. 293~312.
- 홍윤표 (2021),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에 투영된 격차 사회」, 『日語日文學研究』,
119, pp. 215~239.
- 이상혁 (2021), 「수행적 주체의 현기증—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소멸세계』, 『살
인출산』—」, 『日本語文學』, 第91輯, pp. 201~232.
- 이지형 (2022), 「정체성의 섬뜩한 계곡과 혐오의 전유법—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
『편의점 인간(コンビニ人間)』의 윤리」, 『일본연구』, 37, pp. 200~234.
- 이상혁 (2023), 「2010년대 이후 한일 마법소녀의 행방—무라타 사야카와 박서련을 중심
으로—」, 『日本語文學』, 96, pp. 147~172.
- 신하경 (2024), 「무라타 사야카, 탈인간의 (불/)가능성을 묻다」, 『日本學報』, 138,
pp. 211~247.
- 하가 고이치 (2025), 「무라타 사야카의 작품들을 통해서 본 일본 현대문학과 인류세와의
거리—「도시를 먹다」, 「생존」, 「무해한 생물」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19-1, pp. 1~46.
- 무라타 사야카 (2017), 『소멸세계』, 살림, pp. 8~290.
- 메리 더글라스 (2004), 김우주(역), 『순수와 위험: 오염과 터부의 개념에 대한 분석』, 동
문선, p. 55.
- 미셸 푸코 (2003), 이규현(역),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나남, pp. 177~189.
- 브라이언 마수미 (2024), 이수진(역), 『가상적인 것의 우화들: 운동, 정동, 감각』, 갈무리,
pp. 27~71.
- 에마뉘엘 레비나스 (2018), 김도형 외(역),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그린
비, pp. 231~237.
-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2012), 김상운(역), 『이무니타스: 생명의 보호와 부정』, 난장,
pp. 9~32.

- 한스 요나스 (2004), 이진우(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 村田沙耶香 (2018), 『消滅世界』, 河出文庫.
- 兪在眞 (2018), 「村田沙耶香の『コンビニ人間』を読む—『近代的自我』の終焉—」, 『日本語文化』, 43, pp. 243~258.
- ロバート・ベラ (1973), 河合秀和(訳), 『社会変革と宗教倫理』, 未来社.
- Barad, Karen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pp.132-188(Ch.4), pp. 333~396(Ch.7).
- Douglas, Mary (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Routledge&Kegan Paul.
- Jonas, Hans (1984),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n Ethics for the Technological 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ssumi, Brian (2002),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ke University Press.
- 「'19세 미만 구독불가'?...무라타 사야카의 '살인출산' 어떤 소설이길래」, 『경향신문』, 2018.2.16. (<https://www.khan.co.kr/article/201802161054001/>, 2025년 8월 25일 접속)
- 「Earthlings by Sayaka Murata review」, *The Guardian*, 2020.11.4.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0/nov/04/earthlings-by-sayaka-murata-review-a-fizzing-tale-of-alienation?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25일 접속).
- 「『コンビニ人間』170万部、『葉桜の季節に君を想うということ』100万部突破! -芥川賞受賞の世界的ベストセラー&最後の「映像化不可能小説」」, 『文藝春秋』 2024.5.11.,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437.000043732.html?utm_source=chatgpt.com/ 2025년 8월 25일 접속).

Abstract

**Responsive Life, an Insulated World –
A Bioethical Reading of Sayaka Murata’s *Shōmetsu Sekai***

Kim, ByeongJin (Dankook Univ., HK Assistant Professor)

Park, LeeJin (Sungkyunkwan Univ., Associate Professor)

This article reads Murata Sayaka’s *Shōmetsu Sekai* from the vantage point of bioethics. The experimental city “Eden” is depicted as an insulated regime that, through a hygiene ideology and biopolitical apparatuses, governs love, sex, and reproduction in the language of “safety” and “efficiency.” Focusing on the “affective remainder” that slips through this seamless management, the study analyzes Eden’s management and rule mechanisms via Mary Douglas’s concepts of pollution/cleanliness and Michel Foucault’s theory of biopolitics. It further reinterprets that remainder as an ethical and ontological event through Emmanuel Levinas’s “face of the Other” and Karen Barad’s notion of “entanglement.” On this basis, it proposes three principles of a “ethics of attunement” as an alternative for restoring the quality of relations damaged by the system: (1) the right to relation, (2)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and (3) boundary-setting and preventive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Shōmetsu Sekai* is shown to go beyond a merely dystopian warni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relational ethics demanded by the technological age.

Keywords: Murata Sayaka, *Shōmetsu Sekai*, ethics of attunement, biopolitics, right to relation, face of the Other

논문 투고일: 2025년 08월 30일
심사 완료일: 2025년 10월 0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0월 10일